

[사회]

경유값 1천원대 기준 산출 '유가 보조금'

버스·화물업계 "별 도움 안된다"

기름값 배로 늘어도 지원금은 제자리

정부가 버스, 화물업계 등 운송업체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천정부자로 치솟는 기름값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광주시 버스, 화물차 등 여객·운송업체에 유가보조금 35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지원금의 경우 8당 287.37원짜리 지난 2001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여객업체에 도움이 됐으나 현재 경유가가 1천905원까지 치솟는 상황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달 평균 400만원여치의 경유를 사용하는 12t 대형화물차의 경우 월 100만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매월 700만원 상당의 경유를 쓰고 있는 현재도 유가보조금은 제자리다.

조금의 취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287.37원인 보조금액을 2배인 574.74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화물업계는 정부가 지난 3월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유가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주행세를 포함한 유류세를 10% 일률 인하는 바람에 유가보조금의 재원이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

한다. 정일권 광주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과장은 "유가 보조금이 그동안 화물자동차 업계에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가 무리대고 주행세 까지 인하하는 바람에 유가보조금까지 줄었다"며 "현재 유가 인상에 맞춰 주행세를 현재 금액의 두배 이상으로 올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화물자동차

전국연합회 등과 함께 국토해양부에 주행세 인상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에 유가보조금이 화물 자동차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해당 부처가 주행세의 세율 조정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점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들아!" 13일 경남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전사자 흉상 제작식에서 故 조천형 중사 아버지가 아들의 흉상을 어루만져보고 있다. /연합뉴스

면세유 빼돌려 시중 판매

여수해경, 주유업자 등 2명 적발

여수해양경찰은 13일 양식업자와 공모해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시중에 판매한 주유업자 이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7)씨를 조차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전 대표 김모(47)씨가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약 20만7천ℓ를 되팔아 2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양식장에서 연료유로 쓸 저터널 수협 직원을 속여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부정으로 발급받아 사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전 대표 김모(47)씨가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장학사 13명 신규 선발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전문직(장학사) 공무원 13명을 신규로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7명을 선발한 초등 장학사의 경우 교감 부문에서 광주 월산초교 정영숙 교감이 장학사로 선발되는 등 교감 1명과 교사 6명이 합격했다. 이와 함께 영아교육 강화를 위해 광주 농성초교 조영민 교사가 영아전문 장학사로 선발됐다.

〈합격자 명단〉 ◇초등 ▲정영숙(광주월산초 교감) ▲김수강(불로초) ▲김현덕(금구초) ▲임용(장산초) ▲정순자(송정중앙초) ▲정혜경(영주초) ▲조영민(광주농성초.영아) ◇중등 ▲이영호(홍암고.영아) ▲김덕중(전남공고.전문공공) ▲박은아(전대사대부고) ▲양병숙(광주에솔고) ▲진영(가화중) ▲형지영(광주과학고) /정성필기자 camus@

국세 찍힌 교장 임명장 9월부터 사라진다

교육감에 임용권 위임

오는 9월 교원 정기인사 때부터 초·중·고교 교장 임용자들은 대통령이 아닌 교육감 서명이 찍힌 임명장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교장 임용권 및 교원 인사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이 모두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의 시도 간,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전보계획 수립 권한도 교과부 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특히 교장 임명권 위임의 경우 지금도 사실상의 임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나 절차상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게 돼 있어 요식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교과부는 늦어도 8월 초까지 입법절차를 끝내고 9월 1일자 교원 인사 때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이유 후원금' 서경석 목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국세청 간부에게 제이유 그룹의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던 복지단체에 수억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서경석 목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목사에 대해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축

- ▲빙영중(광주인성고 행정실장)씨 장남 정호(광주 남구정)군 김성기씨 장녀 진아(광주은행)양=15일(일) 오전 11시20분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3층 아이리시스.
▲심성결씨 장남 병준(대구캐리어)군 김지연씨 차녀 수현양=15일(일) 낮 1시 사직공원 앞 천변로 베니스웨딩컨벤션 1층 피오레.
▲정성희씨 동생 운동(대구캐리어)군 김지연씨 차녀 수현양=15일(일) 낮 1시 사직공원 앞 천변로 베니스웨딩컨벤션 1층 피오레.
▲이명필(문성고 교사)씨 장남

- 환관 박종남씨 차녀 주미양=14일(토) 낮 12시10분 상무지구 에벌루션웨딩홀 2층 라벤더.
▲기세운씨 차남 명석(문학)군(영암군 재무과)씨 장녀 유덕양=14일(토) 낮 1시30분 광주 버킹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강희원(광주디자인센터 부부장)씨 아들 영석(LG전자)군 김귀분씨 딸 이은미(동양종합금융증권)양=14일(토) 낮 1시30분 서울 서초웨딩홀.
▲김순자씨 차남 모성대(대구)군 우광운씨 차녀 혜경양=15일(일) 낮 1시20분 오페라하우스 1층 오페라 특실.
▲백남채(전 광주 남구 주민생활지원국장)씨 장남 광정(광주 남구청)군 조수현씨 장녀 연아(광주 우산초교)양=14일(토) 낮 12시

- 10분 상무지구 에벌루션웨딩홀 3층 칸벤션홀.
부음
▲이항열씨 별세 남흥·남규·남일·국일·성주·성갑·남래·남순씨 부친상 천제단·노영주씨 부부상=발인 14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20호. 062-227-4000.
▲한명숙씨 별세 병원·혜숙·혜임·순오·영숙씨 부친상 김대용·오명섭·양희성·최충대씨 부부상=발인 14일(토)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
▲현일환씨 별세 재형·재석·재광·영자·영자·영순씨 부친상 이연덕·차용기·위순환씨 부부상=발인 14일(토)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공군, 폐달로 나는 비행기 개발 착수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힘만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가 개발된다.

공군은 13일 공군사관학교 항공과 교수진 등으로 전담추진팀을 구성, 기계의 힘이 아닌 인간의 힘만으로 이륙해 비행 및 착륙할 수 있는 '인력(人力)비행기'의 개발 및 제작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곡경제인연합회와 정병철 상근부회장은 13일 오후 공군회관에서 오창환 공군 참모차장에게 후원금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에 이어 세계 5번째로 '인력비행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로 기록된다.

공군의 개발 계획에 의하면 '인력비행기'는 조종사가 두 발로 페달을 밟아 지상을 이륙, 무게 30~35kg의 글라이더형 대형 날개를 이용해 비행한다는 것. 재료비 1억5천만원을 포함, 3억원이 투입되는 이 비행기의 목표 비행거리는 약 2km다. 공군은 시제기 2대가 성공적으로 하늘을 날 경우 태양열 발전으로 작동하는 비행기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언론 상대 민사소송 원고 패소율 더 높아

최근 3년 사이 법원이 판결한 언론 관련 민사 소송의 원고 패소율이 승소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선고된 언론관련 소송 사건 약 390건 중 언론사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한 349건의 판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3일 밝혔다. 민사 사건의 재판 결과 분석에 따르면 원고 승소율(원고 일부 승소 포함)은 43.4%, 패소율은 56.1%로 나타났다. 원고가 요구하는 피해구제 방법인 청구별 원고 승소율은 반론보도가 4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손해배상 사건이 43.4%, 배포·방송금지 가처

분이 25.0%, 정정보도가 23.4%였다.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은 명예훼손이 전체 평균과 같은 43.4%였고, 명예훼손 및 초상권침해 57.9%, 초상권 단독 침해 85.7%였다.

한편 형사 사건의 판결 결과를 보면 유죄선고율이 72.7%, 무죄선고율이 24.2%, 공소기각이 3.1%로 조사됐다. 죄명별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53.9%로 가장 많았다. 매체유형별 소송 빈도는 방송이 29.8%로 가장 높았고, 일간신문 27.9%, 인터넷 매체 19%, 주간신문 10.3%, 월간지 8.1%, 뉴스통신 4.1%였다. /연합뉴스

先報 光州日報 光州점수안내 (062)220-0553 FAX:227-9500

상속신청승인공고 방정석(551107-1010631) 상속에 대한

산행안내 산행안내 접수는 정확한 내용을 제공을 위하여 팩스 및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조합창립총회 개최공고 임동규(유동·임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창립추진위원회

공고 인·장인우 (위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천경자 모 박부자)

6월 15일(일) ▲요양수신학회 부속 남양사 6월 15일(일) 7시 재래형영양실습(전 3명) 3명/사

6월 16일(월) ▲광주영문산학회 총평문·패션문·비즈니스문 중등(6월 16일(월) 8시 광주역 출판문화센터

6월 17일(화) ▲임주신학회 패션 디자인 6월 17일(화) 7시 영주체육관 출판문화센터(이화여대 후문)

6월 18일(수) ▲광주인성학회의 승남 불빛 철주승 6월 18일(수) 8시 광주역 출판 문화센터(광주인성학회의 7011 602 3709)